

◆ 중구
구청 직원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동참



/중구제공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현)청 직원들이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시리아를 위해 심시일반 뜻을 모았다. 인천시 중구는 20일 김정현 중구청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모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 733만 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모금은 김정현 중구청장이 "피해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자"라는 뜻을 밝힌 데서 출발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중구청 직원들이 자발적

으로 성금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또한 중구는 성금 모금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기저귀, 담요 등 각종 구호 물품을 모집해 지난 17일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이글종 합물류'에 직접 전달을 완료했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이번 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 "중구청 공직자들이 모은 성금과 구호 물품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 계양구
2023년도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계양구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일 계양구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 과제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유동수 국회의원, 김중득·조성환·석정규·문세종 시의원, 조양희 계양구 의회 의장과 구의원 5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양구는 계양 관광 인프라 확충, 부평항교 종합 정비 계획, 차 없는 거리 지정과 문화행사 추진, 계산시

장 일원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계양문화관광(가칭) 조성 사업,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 단지 조성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국·시비 예산 확보와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15건의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환 구청장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인천시,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근거 마련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 공포
법률자문, 지원정책개발 등 통해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을 말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관리·운영에 대한 갈등과 분쟁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상 행정청의 관여가 어렵고 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규약 설정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 보존·관리·변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순병득 시 건축과장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강화군, 농작물·농업인 보호하는 재해보험료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나선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 농업인안전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 지원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등 과수, 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등 70개로 올해 귀리, 양상추, 시설 봄감자가 새로이 추가됐다. 각 품목별로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가입시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이 또한 지역농협에서 가입가능하

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적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안전보험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군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호비 기자 / jonghapnews.com

미추홀구, 학교숲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사업 대상 학교 2개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숲이란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구는 지난해 인화여자중학교에 약 500㎡ 규모의 학교 숲을 조성했으며 주민의 녹색 휴식 공간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사업대상지인 인천서화초등학교와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는 지난해 9월 사업대상지 신청을 통해 선정됐으며 교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녹지 공간이나 유휴공간에 학교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 이후 실시할 계획 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회, 주민들의



/미추홀구제공

의견을 반영한 조성안을 수립해 오는 5월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활용도 높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며 "아울러 조성 후에도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모니터링 및 생태학습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Advertisement for the 2022 Safety Management Act. It features a hand holding blocks with icons for safety management, hazard remov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Text includes: '2022년 1월 27일 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and details about the law's application for companies with 50 or more employees starting from January 27, 2024.